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학이 상생하는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지난달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지역 청년 간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특별시 미래에 대한 정책 설명과 참여 청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나, 그 중 지방시대위원회 자료를 통해 나타난 “국립대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언급됐다.

청년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해 “국립대학 편중을 막고, 사립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강



▲청년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고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출처: 전남도청)

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와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같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

“사립대학의 성장이 곧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며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핵심 동력으로 꼽으며 “사립대학별 특성화된 역량을 지역 전략 산업과 밀착시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에 밀리지 않는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통합 이후에도 균형 성장을 이루

기 위해 지자체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가 직접 ‘사립대 특성화를 통한 국립대 수준의 지원’을 공언한 만큼,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충될지 주목된다.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사립대 구성원들이 입지를 다지도록, 약속의 이행 과정을 지켜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2026년 ‘HYPER 2.0’ 선포

우리 대학이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HYPER 2.0’을 선포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교육·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수요 중심 공간 조성 ▲유연학사제도 ▲전공자유선택제 등 ‘HYPER 1.0’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HYPER 2.0’은 AI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HYPER 2.0’은 대학 내 구성원 모두에게 AI 라이선스를 배포하며, 개인 특성에

맞춘 성장 로드맵을 기반으로 맞춤형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도 새롭게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타 사업과 연계해 AI·SW 관련 교양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재학생에게는 프롬프트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AI 활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윤리’와 ‘보안’을 원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성능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내 전용 AI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

이터 유출 우려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홍석 대학혁신사업지원단장은 “HYPER 2.0은 국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한 모델”이라며 “AI 리터러시 확산과 기초 문해력 강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AI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AI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더 풍성해진 영월 단종문화제

지난 2월 초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 2026)가 무서운 흥행 열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누적 관객 수는 지난달 24일 기준 1,484만 3,000여 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중 흥행 순위 3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영화 흥행의 파급효과와 함께 뜨고 있는 축제가 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 ‘단종문화제’다. 단종문화제는 조선의 6대 임금인 단종의 혼과 그를 위해 목숨 바친 여러 충신의 넋을 위무하기 위한 축제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단종과 충신들의 정신을 후세에 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축제는 단종 제향을 시작으로 단종 관련 유적지에 등불을 밝히고 ▲최 줄다리기 ▲산릉 제례 어가행렬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국왕 중심의 유교의례를 직접 보고 참여하는 것은 마치 조선시대로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이번 제59회 문화제가 특별한 이유는, 영월 단종문화제에 <왕과

사는 남자> 주역들이 직접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영월군은 이번 단종문화제에 장항준 감독이 참석한다고 밝혔으며,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는 축제 홍보 영상을 촬영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단종문화제 주제곡 <환생>도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문화제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청령포 일원에서 ‘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중앙도서관 5층 글로벌 북스케이프 전경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2026년 대학도서관 특성화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도서관은 지원받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중앙도서관 5층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글로벌 북스케이프 라운지(Global Bookscape Lounge)’를 중심으로, 유학생의 학습·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북스케이프 라운지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조성됐으며, 다국어 자료 제공과 유학생 친화적 공간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술정보 이용 교육 ▲문화 교류 프

로그램 ▲유학생 큐레이터 양성 등을 진행하며 도서관 중심의 글로벌 학습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한다.

해당 지원을 통해 우리 대학 내 유학생의 학습 적응을 돕고 국내 학생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대학 내 국제화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5천 807명으로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종구 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활용하고 학업과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jgus@naver.com

「同Go同樂 꿈터」, 학생들의 진로·취업 정보 접근성 확대 기대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내 지난 학기까지 운영됐던 성공 라운지가 방학 기간 리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동고동락(同Go同樂) 꿈터로 재조성 됐다.

동고동락 꿈터는 대학 혁신 사업비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대학 인재상인 ‘함께형 인재’를 기반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공간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돕고 취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동고동락 꿈터는 ‘Career Lounge’와 ‘DREAM LAB’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Career



▲중앙도서관 1층 동고동락(同Go同樂) 꿈터 전경

Lounge는 소파와 계단식 좌석, 테이블 좌석 등 라운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취업과 관련된 행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DREAM LAB에서는 지난달 ▲2026 상반기 포스코 생산 기술직 설명회 ▲2026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설명회 및 상담회 ▲삼성생명 호남 금융S 채용 설명회 및 현직자멘토링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채용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이달 7일에는 ▲2026 예금보험공사 채용 설명회 ▲2026년 상반기 한미그룹 채용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취업전략팀 이강희 팀장은 “중앙도서관 1층에는 취업전략팀, 일자리플러스센터, Local Rise LAB 등 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집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동고동락 꿈터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부담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로·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며 “언제든지 편하게 드나들며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jgus@naver.com

유류할증료 3배 인상에 항공권 ‘요금 폭등’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항공 유류할증료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내 항공사가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 달 새 3배가 오른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달에는 편도 1만 3천5백 원에서 최대 9만 9천 원을 부과했으나, 이번 달에는 인천발 청다오, 후쿠오카 등 거리가 짧은 노선은 최소 4만 2천 원에서 뉴욕, 워싱턴 등 거리가 먼 노선은 최대 30만 3천 원 사이를 적용한다. 그중에서도 인천발 뉴욕 등 장거리 북미 노선은 기존 9만 9천 원에서 30만 3천 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지난달에는 편도 기준 최소 1만 4천6백 원에서 7만 8천6백 원을 부과했으나, 이번 달에는 가까운 엔타이, 구마모토 등에는 최소 4만 3천9백 원을 적용하며, 거리가 먼 런던, 로스앤젤레스(LA) 노선 등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 (출처: 매일경제)

최대 25만 1천9백 원 사이를 적용한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부과하는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지난달 편도 기준 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됐지만, 이번 달 25달러에서 76달러로 3배 이상 인상됐다.

이러한 항공권 인상으로 인해 신흥여행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계획 등이 무산되거나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항공권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행 관련 업계도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에 대한 피해와 렌터카나 전세버스의 운행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여행사가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 여행 계획에서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사 등 대부분 여행사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 전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선발권’을 적극 안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행 업계는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전 예약’ 수요를 노린 마케팅을 벌였다.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여행 예산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항공권 가격 추이를 자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최근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시작하며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정책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24개월,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타지에서 거주하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주거비 비중이 커지면서 학업과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 속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내 청년 인

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대학 범진오(영어영문·4) 학우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라며 “지자체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금액인 2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 안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총장 김춘성 / 편집인_겸 주간_지병근

편집국장_여정인 / 인쇄인_박만수

주 소_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062-230-6162 / FAX_062-234-3014 / 행정실_062-230-6166

사령

• 남대희(국어국문·3) 수습기자
• 박시연(영어영문·2) 수습기자
• 진유철(정치외교·4) 수습기자

이상 3명을 수습기자로 임명합니다.

〈조대신문사〉

지금 우리 대학이 있기까지

우리 대학이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슬로건이 새롭게 제작됐다.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 슬로건은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대학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년까지 사용했던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슬로건과 비교했을 때 지역과 함께,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 발전하려는 포부와 염원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이제는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우리 대학의 역사를 돌아본다.

시민이 세운 대학

광복 이후, 광주에서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는 주장이 확산하자 ‘조선대학 설립 동지회’가 결성됐다. 곧바로 회원 모집 및 대학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을 전개해 7만 2천여 명이 모였고 대학 설립을 위한 자금이 마련됐다. 이로써 1946년, 광주에는 광주 야간대학원이라는 최초의 민립대학이 문을 열었다.

11월, 광주 야간대학원은 조선대학원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53년 종합대학 조선대학교로 승격됐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도했던 민립대학 설립이 광복 이후 광주에서 시민들의 손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

독재로 맞은 위기

대학 설립의 기쁨도 잠시, 당시 설립동지회 회장 박철웅의 독재로 우리 대학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1대 총장에 취임했고, 총장의 직위를 남용해 독재적인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 임원진들을 측근으로 구성하는 등, 점점 1인 체제의 학교를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설립자라는 위치와 독재정권으로 부정을 막을 방안이 없었지만, 4·19 혁명을 계기로 교수진과 학생들은 우리 대학을 지키려는 각종 투쟁을 통해 부정한 재단을 척결했다. 하지만 그는 총장 자리에서 내려왔음에도 이사장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독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그는 다시 학교 경영에 복귀했고 곧바로 대학 설립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설립동지회의 역할을 지우고 자신의 업적만을 강조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설립동지회의 역할을 은폐하려는 것은 곧 ‘우리의 손으로’라는 민립대학의 이념을 지위버리는 것이었다. 또한 교수진의 부당한 해고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대학 설립자를 개인 설립자로 변경하며 우리 대학을 완전히 사유화했다. 이에 반항하는 교수진에게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는데, 유명한 일화 중 교수진의 ‘단체 구보 사건’이 있다. 당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교수들을 소집해 운동장을 뛰게 한 사건이다.

그의 총장 복귀를 통한 독재 행위와 폭력은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 의미를



▲우리 대학 정문에 있는 대형 간판



▲완공된 첫 교사 앞에서 찍은 사진

되색시키는 것이었으며 대학을 몰락시키는 길이었다.

1·8 항쟁

이러한 독재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의 독재정권을 앞두고 ‘호헌 철폐, 독재 타도’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대학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의 퇴진과 함께 민립대학 정체성을 돌려받기 위한 투쟁이 전개됐고 ▲교수진 ▲학부모 ▲동문 ▲대학 구성 직원들과 함께 110일 동안의 농성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1988년 농성 113일째인 1월 8일 새벽, 공권력이 투입되며 학생들이 진압됐고, 옥상까지 물리자 투신을 한 학생도 발생했다. 남은 학생들은 연행되거나 부상을 당했고 그렇게 점거 농성은 막을 내렸다.

농성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

이 흐를수록 투쟁 인원이 늘어나며 특별감사를 통해 박철웅 총장이 해임되기도 했다. 그의 해임은 대학이 1인의 설립이 아닌 민중들이 함께 세운 것이라는 역사를 되찾았음을 뜻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학은 강제 해직당한 교수들을 복직시키고,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등 민주적 학원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이로써 1·8 항쟁은 대한민국 학원민주화운동 역사상 최장기 시위이자 대학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다시 돌아온 우리의 대학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환원과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투쟁은 차별점이 있다. 주로 학생의 자율화를 요구했던 다른 대학의 시위와 다르게 우리 대학은 대학의 정체성을 위한 싸움을 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이다.

투쟁 이후 대학 운영에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학 자치 관리 운영협의회가 출범했고 구 경영진의 복귀를 차단하며 반복의 여지를 두지 않는 등 민주적인 대학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오랜 기간 임시 이사 체제로 이뤄지며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 우리 대학은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학의 사유화 방지 등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렇게 지킨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이어지며 우리 대학의 학우들이 편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역과 함께한 80년

이후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을 확충하며 학문 영역을 넓혔고, 현재는 ▲아랍어과 ▲광기소공학과 ▲육군본부 협약 군사학부 ▲K-컬처공연·기획학과 등 전국 대학 중에서도 이색적인 학과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화된 교육 시행은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학은 광주광역시와 RISE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협약을 통해 인프라 향상, 청년 인재 양성 등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구축하며 혁신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글로벌 사업 30에 선정되며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본지 1172호의 보도 1에서 만날 수 있다.

앞으로의 100년

민중의 힘으로 세워진 대학으로써 그 가치를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지역 거점의 역할을 통해 꾸준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민족국가 수위에 이바지할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정신을 잇고 개성·생산·영재교육이라는 건립 이념에 따라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지역 범위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통해 호남 최대 사립대인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한 단계 성장하길 기대한다.

우리 대학은 과거의 상처와 역사를 안고 지역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글로벌 교류 등의 활동을 거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민주화를 향했던 우리 대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감사함을 다시 상기한다.

어렵게 자리를 지켜낸 우리 대학의 독립과 자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며 애교심(愛校心)을 갖길 바란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한국문화 세계화에 앞장서는 국어국문학부



장 지웅 학우
(국어국문학과·4)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부는 1946년 문예학부 문학과로 출발해 문학과 내에서 국문학과로 독립 후, 1969년 국어국문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국어국문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에 국어국문학 전공과 고전 번역 전공을 뒀다. 2025년에는 고전 번역 전공이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개편되며 현재는 국어국문학부 내에 국어국문학 전공과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국어국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론을 습득해 학문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다양한 문화 인력을 양성하며, 한

국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집중한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우리 대학 학과 평가에서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과로 선정됐다.

한국어교육과는 모어가 아닌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한국어교육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어국문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두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덕분에 학생들은 입학 후 1년간 충분히 고민하고 국어국문학과와 한국어교육과 중 자신에게 맞는 학과 진학을 결정할 수 있다.

학부를 자세히 탐구하기 위해 국어국문학부 학생회 장지웅(국어국문학과·4) 회장을 만났다. 장 학우는 국어국문학부는 글로벌인문대학의 모든 학과 중에 학회가 ▲터알 ▲개밥바라기 ▲우리말 숲 ▲극문학 연구회 ▲바른 소리 연



▲국어국문학부 MT행사

구회 ▲혜움불 ▲신한얼 편집부 7개로 제일 많다는 특성을 언급했다. 각 학회는 저마다 뚜렷한 색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다.

터알은 시를 중심으로 에세이, 소설 등으로 범위가 더 넓으면서 직접 책을 제작하는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개밥바라기는 시를 지어서 시화전을 개최하는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말 숲은 한국어교육 전공 신설과 함께 제일 최근에 생겨난 학회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실질적인 교육 현장을 체험한다. 극문학 연구회는 연기와 극작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회로 극본을 직접 제작하는 것부터 연출, 연기를 하고 무대에 오르는 활동을 한다. 바른 소리 연구회는 방언을 바탕으로 에세이와 논문을 연구하거나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회이다. 혜움불은 고전 번역 전공이 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학회로, 고전 원문을 현대어로 재해석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한얼은 다른

학회들이 1년간 해온 모든 활동들의 결과물을 모아 교지로 엮어내는 마칩표를 찍는 학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은 국어국문학부의 행사인 국문인의 밤에서 공유하며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처럼 다양한 학회들 덕분에 대부분의 학부 활동이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전했다.

장 학우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면 ▲방송사 작가 ▲출판사 ▲언론 ▲교수 ▲교사 등의 다양한 진로가 열려있으며 그중에서도 출판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장 학우는 영화를 좋아하는 자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본가를 진로로 생각 중이다. 마지막으로 국어국문학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고전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한국어교육 전공은 외국인과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어에 능통하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조언을 남겼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12345@naver.com

경계를 허물고 시대를 이끄는 힘, 정치외교학과



김 라 희 학우
(정치외교학과·3)

우리 대학의 개교와 동시에 함께한 정치외교학과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지역과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책적 해안을 교육한다.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정치·외교·통일 분야의 창의적인 공공 전문가를 배출하는 지성의 요람이다. 정치외교학과는 지난해 우리 대학 2025년 학생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동GO同樂 인증 우수학과'로도 선정되며 내실 있는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이러한 토대 위 제30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도 참여하며,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술적 깊이와 실천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이 강의실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체가 결합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이렇게 학과를 이끄는 학우들 사이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김라희(정치외교학과·3)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학우는 정치외교학과를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학과”라고 정의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 역시 학문과 학과 생활 전반에 있어 늘 진심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덕분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학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학과의 독보적인 행사로 ‘모의 시의회’를 언급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직접 방청한 뒤, ▲산업 건설 ▲교육 문화 ▲환경복지 위원회 등으로 나뉘 실재 조례안을 검토하고 수정·개정해 보는 활동이다. 김 학우는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정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



▲정치외교학과 MT 행사

여해 보는 경험은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주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외교만의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여러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국제정치론’ 수업을 유익했던 강의로 꼽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이끌고 있는 제39대 ‘시드(SEE:D)’ 학생회에 대해서는 “신후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며 준비 과정의 고충마저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당찬 면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학우는 “이번 한해가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다.

이러한 성과는 정치외교학과가 지향하는 뚜렷한 전공 적성과 맞닿아 있다. 정치학은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 사회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논리적인 분석력을

요구하는 학문이다. ‘국제정치론’ 수업이나 ‘모의 시의회’ 활동은 학생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조적 추리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정의과가 배출하고자 하는 공공 전문가는 투철한 책임 의식과 봉사 정신을 갖춘 리더다. 자신의 의견을 정립해 타인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발표력은 정의과 학우들이 갖춘 기본 소양이며, 이는 수평적인 학생회 문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우들의 모습은 정의과가 왜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를 증명한다.

결국 이론과 현장을 누비며 쌓은 정책적 해안은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만의 독보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전통의 토대 위에서 내일의 세계를 설계하는 정치외교학과 학우들의 진심 어린 행보는,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를 선동하는 가장 강한 동력이 될 것이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전쟁 속 가중되는 경제적 혼란

호르무즈 해협과 국내 영향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지는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의 자문과 함께 이번 전쟁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전쟁의 시작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와 정권교체”를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란의 군사 시설과 핵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전쟁 발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에 의해 사망했고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공습에 대해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대응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여파는 ▲유가 및 천연가스의 상승 ▲중동 영공 폐쇄로 항공 및 관광업의 타격 ▲금융 시장에 혼란을 주는 등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것이 국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호르무즈 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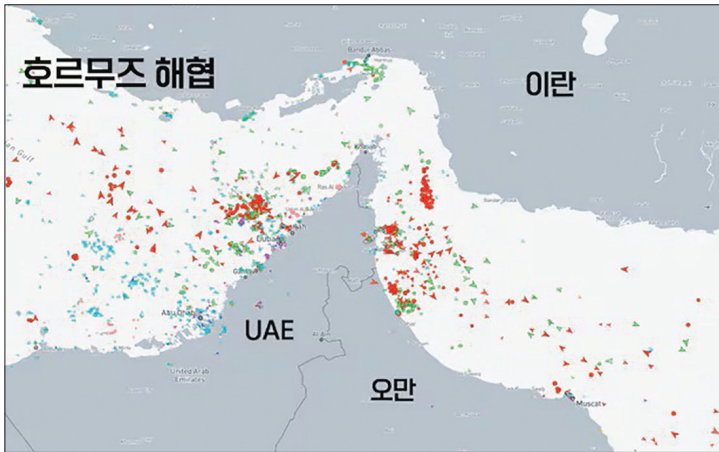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령 무산담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해양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해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적인 곳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입지는 20세기에 한 번 강조된 적이 있었다. 1981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하자, 미국 해군의 개입이 발생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약 39km지만 섬이 많고 수심이 얕아 초대형 유조선이 통행할 수 있는 실질적 폭은 10km 정도다. 이마저도 출입 항로가 나뉘어 있어 군사적 충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해상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중동에서 오는 비중이 크며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모여있는 선박들 (출처: 조선일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로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초, 많은 국가의 유조선들이 해협에 고립되기도 했다. 국내 유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선박이 피격당할 수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봉쇄가 막 시작될 무렵 국내로 오는 선박 하나가 탈출에 성공해 마지막 통행 선박이 되며 국내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불가함에 따라 국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수는 대폭 감소했고 실제로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대폭 상승해 지난달 30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국제유가 동향 자료에서는 석유 생산 감축으로 인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원유 수송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유가는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렌트유는 북해에서 거래되는 원유를 총칭하는 용어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유 지표이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유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유가 상한제는 국제유가 급등 시 정부가 유가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제도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1977년 유가 자유화 정책 이후 30

년 만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와 시장 왜곡,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한다.

교수의 시선

공진성 교수는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해 왔다”라며 “이스라엘로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 정권을 약화하고, 지역 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개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 내 정치적 위기와 ‘성공의 함정’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 ‘재앙’에서 ‘비즈니스’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내용을 설명한다.

미국의 참전 배경에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얹혀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승부수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패배 등 적색 신호가 켜진 트럼프 정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영향이 있었다는 시선이다. 이스라엘을 ‘신의 땅’으로 여기는 극우 기독교 세력은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선악의 대결’로 여기며 개전을 재촉했다. 마지막으로 ‘성공 기억’에 따른 오판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성공은 손쉽게 국민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적은 돈으로 소란스럽지 않게 주변국을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런 경험 속에서 미국은 “이란 역시 단기 타격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의 구조적 특성이라 전한다. 미국을 건국 이래 전쟁을 멈춘 적 없는 ‘군사-산업 복합체’ 국가로 정의하며 과거의 전쟁이 소모적 행위였다면, 현대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며, 산업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본다.



▲공습으로 파손된 테헤란 내 경찰서 건물 (출처: 뉴시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테헤란 정유 공장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 (출처: 한겨레신문)

전쟁터는 첨단 무기 체계의 ‘실전 쇼케이스’가 됐고,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얻을 수 없던 실질적 데이터는 무기 수출과 막대한 실익으로 이어진다. 공진성 교수는 “현대의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계산된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 있다”라며 덧붙였다.

최근 타임라인 및 국내 좌표

지난달 27일 기준 이란-미국의 전쟁 전환은 ▲지난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 개시 및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난달 1일 알리 하메네이 공식 사망 보도로 인한 이란 정권의 위기 ▲지난달 12-14일, 17일 이란의 다국적(태국 화물선, 두바이) 타격 및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주요 우방국들의 거절 표명으로 이어진다.

공진성 교수는 이란-미국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놓인 치명적인 과제로는 크게 ▲에너지 문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문제 ▲중립 외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 “남에게 의존하는 자원 속에서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율성을 낮추는 것이다”라며 외부 변수에 국가 경제가 휘둘리는 취약 구조를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이미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요 우방국들은 거절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양쪽 사이에서 어떻게 실익을 챙기느냐’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공진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란과 미국의 사이 중립을 유지하며 에너지 공급을 받는 것이 단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치며

21세기에 각국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며 국제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요즘이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는 전쟁 소식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보이니 국민은 더욱 신경이 곤두선다.

하루빨리 정세가 안정화돼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추고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하루가 오길 바란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자문해 주신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칼럼

소요(騷擾)의 꽃-세기의 외로움을 위하여

두.렵.다.

두 시간짜리 연강, 어쩌다 1시간 수업이 끝나고 잠깐만 쉬자고 해 놓고 급한 전화를 하고 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와 보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못해 정적이 넘쳐흐르는 강의실! 이러한 고요와 정적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가는 듯하니 두렵지 않을 도리가 없다.

분명히 그곳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 빈 강의실이 아닌데도, 바로 옆에 있는 동료와 소요(騷擾)를 만드는 그룹은 아무도 없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스마트폰이고 테블릿이다. 짐작건대,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 먼 곳'에 있는 누군가와 연락하느라 내 옆 자리의 존재는 잊은 지 오래이니 쉬는 시간, 강의실이 인적이 끊긴 절간 같은 곳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그 고요 속에서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날 '외로움'이다. 같은 과 동기, 한 스승 아래서 함께 배우고 있으니 '붕우(朋友)'임에 틀림없음에도 그들의 스마트폰 때문에, SNS 때문에 건너갈 다리가 없으니, 강의실엔 저마다 외로운 섬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덕분에 날로 발전하고 있는 ICT 기술은 다양한 변혁의 아이콘들 가운데 하나로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연결이 확대되어 통신의 범위가 시공간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초연결 시대(hyper-connected age)를 가져왔다. 문제는 강의실의 고요가 암시하듯, 정작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점점 더 어려워



강 희 숙 교수
(국어국문학부)

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Noreena Hertz)가 21세기를 일컬어 '외로운 세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2025)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움'을 느끼며 매년 87만 명이 '외로움'으로 사망한

다. 우리 사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38.2%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기적 외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노리나 허츠는 그녀의 저서 『고립의 시대』(2020)에서 무한 경쟁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와 대면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정보사회가 외로움을 증대시켰다고 보았다.

이쯤 되면 우리의 강의실에서 피어나고 있는 외로움의 근원이 어느 정도는 파악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이라면 일단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닫고 내 곁에서 외로

운 섬이 되어 있는 '붕우'에게 눈길을 나눠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매주 보며 "오늘 기분은 좀 어떤지, 지금 배가 고프지는 않는지, 수업이 끝난 뒤에는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쏟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강의실은 비로소 소리가 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꽃이 피어내는 소요라면 나는 "조용히 좀 해!"라는 질책을 얼마든지 야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여, 제발 좀 소란스러워지도록 하자. 이 세기적 외로움을 위하여 소요의 꽃을 피워 보도록 하자.

서 석 대

급할수록 돌아가라

위기(危機)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누구나 한 번씩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나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도와줄 이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하는 지금,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낀다.

현재로서는 일이 많은 것보다 처리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놓칠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다. 하나를 신경 쓰면 다른 하나를 놓치기 쉽다. 한 가지 조차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이 있다.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해 실수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일이 늦게 끝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나는 1년간 이 속담을 마음에 지니려고 한다. 일을 급하게 하면 그르치기 쉽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면 실수 없이, 더 빠른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결'에 초점을 두고 허둥지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둥하는 것보다는 '순서'를 따르며 진행하면 일을 훨씬 안정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

일을 해결하기에 앞서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크게 중요한 것,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 생활 중 많은 과제가 쏟아진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과제는 기한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면 버겁지 않게 안정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나는 '스터디플래너'를 추천한다. 스터디플래너는 해야 하는 일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며 해결한 일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준다. 하루의 일정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인 것 같다. 스터디플래너가 어렵다면 일반 노트를 사용해도 좋다. 쟁점은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이 버거워진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좌절하는 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결국 해내게 될 것이다. 훗날 후련해질 미래를 그리며 급할수록 돌아가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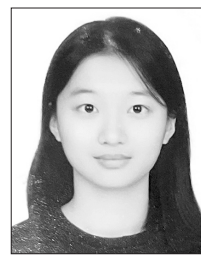
수 습 일 기

명확한 꿈일수록, 선명한 불안

무슨 일을 하던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등학생 때 공자의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솔직히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수업에서 같은 내용을 본 순간, 그 시간이 전혀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경험도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출판 편집자를 꿈꿔왔다. 보통 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보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의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나에게 이 신문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꿈을 위해 향하는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실 출판 편집자를 꿈꾸면서도 글을 쓰는 일이 두렵다. 글을 잘 써야 좋은 편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글을 쓰려고 하면 손이 멈춘다.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나는 일부러 내가 글을 쓰도록 만들었다. 누군가의 글을 읽고, 가장 빛나는 문장을 찾아내 더 예쁘게 다듬는 편집자가 되기 위해 글과 친해져야 했다.



신혜진 수습기자
t1sgpw1s12345@naver.com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나의 명확한 꿈을 보며 주변에서는 나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명확한 꿈이 만드는 불안함을 숨기고 있다. 적어도 3년 내내 '출판 편집자'라는 꿈 하나를 붙들고 살아와 보니 삶이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국어국문학부를 졸업해서 SBI(출판 전문교육업체)에서 출판 실무를 배우

고, 출판사에 취직하는 것까지, 인생 계획이 꽤 단순해 보인다. 이 단순함이 나를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만든다. '이 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 맘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그토록 하고 싶던 일이 상상과는 달랐다면?' 이런 생각들이 늘 한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꿈에 관한 생각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80세 정도는 되어야 끝나려나? 그래도 계속 생각한다. 어제 보다는 더 밝은 미래가 그려지기를 바라며,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공감하기를 바라며 수습 일기를 마친다.

사설

‘벚꽃 테제’와 대학의 공공성 강화

4월이 되면 대학 캠퍼스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 향기가 가득하고, 학생회, 동아리, 학회는 신입생 맞이와 학과 MT 준비로 분주하다. 최소한 이때가 되면 우리는 대학이 세상 그 어디보다 풍요로운 자유와 아름다운 청춘의 공간임을 새삼 깨닫곤 한다. 교정을 걷다 보면 절로 부디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학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게 된다. 아름다운 청춘이여 영원하라.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여 영원하라.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비슷한 것이다.

소위 ‘벚꽃 테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방 소멸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따뜻한 남쪽의 대학부터 고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 테

제가 빈말이 아닌 것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부 남쪽의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폐교의 수순을 밟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는 거의 모든 지방 사립대는 위기의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내외를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위기를 의미한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움’, ‘번영’, ‘삶의 아름다움’ 등 다양하다. ‘벚꽃 테제’는 이와는 정반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벚꽃의 꽃말처럼 ‘벚꽃 테제’의 의미를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려면 최소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립대를 공영화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둘째, 비수도권 대학이 벚꽃처럼 만개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로에는 ‘사립대 육성’만이 아니라 ‘국립화’를 비롯한 사학 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 〈대학자치와 법인개혁〉을 대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학술세미나 시리즈의 1차 학술세미나가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인 개혁과 국립화 방안의 적실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3월 11일). 당일, 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일원인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의 대표들, 그리고 교원노동조합의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그동안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공

감대를 키워왔던 ‘공영형 사립대’를 넘어 ‘국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비록 대표자들이 사건임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교내의 주요 자치단체 대표자들이 ‘국립대로의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일 학술 세미나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의 민주동우회 대표 또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법인이사회 개방이사 초빙 공고문에도 초빙 요건에 “조선대학교의 공공성을 제고(국립대학 전환 등)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다.

벚꽃이 만개하듯 대학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려면 국립대로의 전환을 포함한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국립화는 대학 법인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대학 경영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가 재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려만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최근까지 역대 모든 정부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립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고등교육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비록 어색하고 두렵지만, 때론 고통도 감내해야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며 전진하는 것이 바로 설립 정신을 실현하고, 1·8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데스크에서

학보사의 미래를 위해

뉴스 속 앵커는 데스크 앞에 앉아 뉴스 전체의 흐름을 이끈다. 이때 ‘데스크’는 단순한 자리를 넘어 이슈를 함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편집국장의 자리는 데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발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며 주요 내용을 총괄하고 다듬는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개강과 함께 1176호가 발행됐다. 작년부터 해왔던 발행이지만 1176호는 나에게 있어 조금 더 특별하다. 내가 직접 데스크에 앉은 신문이기 때문이다.

데스크의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아울러보니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새롭게 감피를 잡은 기분이다. 막막함에 잠시 지치던 시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날 길이 보인 것이다. 지금 보니 부족한 점이 아주 많지만, 당시에는 ‘나름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오르며 부끄럽기도 하다.

제대로 지탱하지 못했던 데스크에서, 첫 발행임에도 보도를 위한 글감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주제를 가져온 수습기자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었던가. 열정



여 정 인 편집국장
duwjdlis1022@naver.com

가득한 태도는 나를 반성하게 했고, 초심을 되찾게 했다.

이번 호는 어떤가. 전보다 나아졌는가? 데스크의 시선에서 의문에 대한 대답은 ‘NO’이다. 1177호가 발행되기 전, 편집 및 제작을 담당하는 사무실에서 교육을 진행해주셨다. ‘기사’를 다루는 기본적인 지식부터 구성, 주제 선정, 인터뷰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간을 짝 채워 진행된 교육이었다. 유익한 교육이었고 바로 반영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 시간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인지 1177호의 미흡함이 피부로 느껴지며, 더 일찍 배우지 못함에 아쉬기도 하다.

물론 1177호가 불품없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양식과 방식을 따랐으며 선배들의 고뇌가 고스란히 남은, 소중한 한 호이

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1178호부터는 좀 더 개선된, 교육 받은 보람이 있는 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제는 좀 과감해지려 한다. ‘해도 될까’하는 의문을 버리고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어볼 참이다. 무언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이제 그 노력을 투자할 타이밍이다.

지난 선배들이 해오지 않았던 것, 혹은 과거보다 희미해진 것들을 실행하려면 지난 성과들을 알아야 하며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세워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학우들을 위한 조대신문, 후배 기자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조대신문에 이바지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단장을 마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싶다. 아직은 많이 빼격거리고 불안정하지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노력할 것이다. 데스크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수습기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며 더 발전의 길로 가는 조대신문이 됐으면 한다.

날/말/퍼/즐

꿈	호	락	즈	동
수	중	민	이	무
팅	고	해	동	고
터	사	대	협	르
양	화	간	립	군

-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유배보낸 인물의 이름.
-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 새로 리모델링 한 장소.
- 우리 대학은 최초의 ○○대학이다.
- 전쟁이 발발하자 이란이 봉쇄한 곳의 이름.

지난호 정답

조대신문 수습모집

지난호 정답자

최보성(문예창작학과·4)
박신영(일본어과·3)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아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4월 30일까지 chnews2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를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 왕과 사는 남자

도서 -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상상력으로 역사의 여백을 채우다

<왕사남>만큼 빠져드는 역사책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역사는 승리자, 기득권층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교과서나 역사서에서는 왕조의 교체, 권력의 이동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이런 기득권 중심의 흐름은 역사를 쉽게 이해하기가 편하지만, 동시에 속에 가려진 다양한 삶의 모습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관객들에게 낯선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세조의 권력 욕심과 이로 인한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그친다. 하지만 영화에서 카메라는 '엄흥도'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사 속 실존 인물인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충신으로만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를 충신을 넘어 유배해 온 단종을 진심으로 대한 인물로서 표현했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류적 역사가 흐리게 만든 공백을 상상력으로 메웠다는 것이다. 단종이 영월 청령포에 유배를 가고, 죽은 이후에 엄흥도가 '그의 시신을 거둬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수습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유배 기간 마을에서의 단종과 엄흥도를 비롯한 주민 간의 유대 관계 형성, 슬픔과 웃음의 과정을 상상력으로 풀어내고 있다.

장항준 감독은 웹매거진 한국 영화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역사의 본질은 기득권의 서사가 아닌 뒤편에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역사를 거대한 흐름으로 바라보기보다, 기록되지 못하고 중심 밖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여다보는 과정이 역사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출처: 쇼박스)

진정한 본질임을 시사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관객들에게 거대한 역사의 뒤편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특히 폐위된 왕의 권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배지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의 새로운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한다.

흔히 역사를 강물로 비유하지만, 결국 강물을 이루는 것은 작고 많은 물방울이다. 거대한 이야기만 따라간다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열풍으로 관객 수가 1천500만 명을 넘는 현재, 관심이 커진 만큼 이 영화를 통해서 교과서 밖의 역사의 모습 또한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진유철 수습기자
wisdbcjgus@naver.com

개봉 50일 만에 관객 1천5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서점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쁘게 했다. 영화의 흥행으로 조선왕조실록 관련 도서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교보문고는 영화 공식 개봉일인 지난 2월 4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선왕조실록'을 키워드로 한 도서 판매량이 2.9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비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 영화 흥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한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에스24에서도 개봉일 이후 한 달간 '단종' 키워드 도서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2.5% 증가했고, 이덕일 작가가 쓴 「조선왕조실록 3: 세종 문종 단종」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약 9배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 영화 흥행이 역사 도서 흥행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이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 도서 흥행 시기에 맞춰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27명의 조선의 왕들을 한 권에 모아 핵심적인 주요 사건들을 풀어쓴 책이다. <무한도전>을 통해 대중들에게 유명한 이 책의 저자 설민석의 말투를 그대로 옮긴 구어체 형식의 책이다. 또한, 조선 왕의 말들을 현대식으로 풀어써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삶을 보여줘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한다.

책의 중간에 등장하는 질의응답 구성은 우리가 설민석의 강연 현장에 앉아 있는 느낌을 들게 해 몰입감을 제공하고, 읽다 보면 생각나는 궁금증이나 이어지는 생각들에 대한 답이 기재돼 있어 책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또한, 내용 마지막에 조선 왕에 대한 짧은 글 요약 페이지와 마인드맵 요



▲도서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출처: 매일경제)

약이 제공되어 내용을 다 읽은 후 왕에 대한 큰 줄기의 핵심을 다시 짚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은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왕실 속의 은밀하고 살기가 감도는 일화들까지 볼 수 있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김메이커 한명회가 살생부를 적는 일을 했다는 것과 세조가 후사를 생산하기 위한 신하들의 압박에도 후궁을 단 한 명만 들였을 만큼 무척 애처가이고 부부 금실이 좋았다는 반전 있는 일화는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 신선하고 흥미롭다.

이 책은 어려운 용어나 딱딱한 문체로 구성돼 있지 않아 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역사에 좀 더 편하게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 속에서 봤던 왕의 업적과 사건들뿐만 아니라, 당시 왕의 개인 사정과 입장을 함께 알아보며 더욱 입체적으로 우리 역사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 바란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스포츠 - 프로야구

2026 프로야구 개막... KIA 타이거즈 'V13' 노린다

2026 시즌 KBO 프로야구 리그가 지난달 28일 개막한 가운데, KIA 타이거즈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KIA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이범호 감독 체제로 65승 4무 75패, 리그 8위에 그치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KIA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 다시금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2026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뜨겁게 Always KIA TIGERS'로 확정했다. '다시, 뜨겁게'는 타이거즈 구성원 모두의 열정을, 'Always KIA TIGERS'는 매경기 최고의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자는 의미를 함친 것으로, 다시 한번 시즌 챔피언에 도전한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KIA는 이번 시즌 새로운 선수 영입과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반등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KIA가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다시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지난달 12일 시범경기 중인 타이거즈 선수들 (출처: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

집중되고 있다.

지난 시즌 KIA는 주축 선수들의 잦은 부

상에 따른 이탈로 난관에 봉착했다.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 ▲나성범의 허벅지 부

상 ▲위즈덤의 허리 부상 등으로 타선의 공백이 컸다.

불펜 투수진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도규의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 조상우와 정해영의 난조로 경기 후반 7회 이후 실점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른 선발 투수진의 호투가 이어져도 유리한 상황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기도 많았다.

2026 KBO 리그 정규 시즌은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SSG 랜더스 ▲삼성 라이온즈 ▲NC 다이노스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총 10개의 프로야구 구단이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의 대장정을 이어간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